

## 제 7 장 (7:15-60) 사도 행전 Tape #8096

당신의 성경으로 사도행전 7 장을 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하여 보고 있는데, 요즘은 신약성경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6 장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발견했고, 그것은 헬라주의자로 알려진 그리스 문화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히브리 과부, 또는 히브리 문화를 따르는 과부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고 느껴서, 사도들 앞에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평판이 좋은 일꾼 사람을 지명하도록 결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사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구제를 나누는 일은 선택된 그들에게 직무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일꾼 사람이 선택되었고, 우리를 위해 누가는 그 중에 두 사람을 연장선상의 진열장과 같은 자리에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은 아니었으나, 그들은 교회의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업무를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회와 큰 문들을 열어 주시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큰 문들을 여실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전 생애를 기다리며 허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위대한 일에 있어, 마치 자신들이 또 다른 빌리 그래함인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들의 전 생애가 허비됩니다. 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에게 작은 기회를 열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던 것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이도록 그 분은 그것을 허용하시며, 그 분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주기에 적합한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 항상 사다리의 맨 꼭대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다리의 맨 밑바닥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이는 일이 동이나 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시 75:6), 높이는 것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단지 신실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둔 그곳에서 자신이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면, 더 큰 기회를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해도, 당신은 만족하며 당신이 있는 곳에서 행복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한 곳을 위해 야망을 가지는 것은 분명 하나의 모순 어법이라 것을 당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둔 곳에서 신실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당신은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것을 당신이 압니다. 당신이 25,000 명, 50,000 명을 지도할 수 있을지라도 25 명, 50 명을 사역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라고 확신한다면, 이것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만족시킴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 부지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란트에 대해 주신 비유를 기억합니다(마 25:14-30). 두 사람이 나가서 달란트를 증가시킨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두 배로 남겨,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고, 그 분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단지 땅에 파묻은 한 사람이 그 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신뢰한다고는 언급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것을 빼앗아서

달란트를 배가시킨 자들에게 주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되려니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 열어주신 장소나 수용력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신실하게 섬기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할 때, 주님께서 더 큰 것을 통치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실함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우리는 일곱 사람 중에 하나인 스테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8장에서는 다른 집사인 빌립의 사역을 보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식탁을 봉사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공적을 행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사역을 넓혀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테반의 이야기는 실제로 6장의 8절부터 시작되었죠.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그를 기적들 중의 한 은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다른 종교적 집단과 논쟁을 만들어 내긴 했으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상대할 수가 없었기에, 종교 회의에 고발하려고 그에 대해 거짓 증거를 말할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공회 앞에 서게 되었고, 이 거짓 증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일들이 맞는가? 라고 물었는데, 바로 이것은 스테반이 바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열린 문이죠. 그래서 그는 증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왕들 앞에 불러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행정장관 앞에 끌려갈 것이지만, 그 때 무엇을 말할까? 라고 미리 생각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시험할 기회로서 당신에게 닥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주어졌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번 그들은 법정 앞에 섰고, 늘 그들은 왕이나 재판관이나 등등 누구 앞에서나 서 있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단지 사용했을 뿐입니다. 증거를 함으로서 섬겼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 보면, 바울이 매번 법정이나 왕들이나 모든 것들 앞에 대면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가 어떻게 그것들을 예수님에 대해 증거의 기회로 삼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그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큰 인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하면서, 바빌론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을 나라로 여행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어떻게 그가 하란을 떠나 여행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하나님은 마침내 그 땅으로 들어섰고, 이것이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그 약속을 주셨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흥미로운 조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두운 사막의 밤하늘을 보이기 위해 데리고 나가셔서, 위를 보라, 저기에 있는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없었을지라도,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했던 것은, 이는, 뒤로 가서 창세기에, 실제로 그들, 고대인들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에 밖에 앉아 수를 세어 보았을 것인데,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프로젝트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집계가 우연히 발생한다 해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6,128 개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아니야! 그것은 6,218 개야! 라고 다른 수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눈을 열고 볼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평균은 별이 6,000 여개였다는 것입니다. 음, 그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별들을 셀 수 없었으니, 그것은 그 당시의 과학에도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별들을 셀 수 없다고 말하므로, 의심할 것 없이 과학자들은 대단한 농담 같은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6,218 개만 있다고 알고 있으나, 하나님은, 네 자손이 그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께 묻기를, 내가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그것을 아나요? 사실상,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셀, 그가 나의 상속을 이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나의 집에서 태어난 종이지만, 내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삼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의 암염소와 한 마리의 숫양과 한 마리의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한 마리를 취하여 내 앞에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송아지와 수양을 자르고, 암염소는 반쪽을 냈지만, 새는 통째로 하여, 땅에 그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독수리가 내려오므로, 오후 내내 독수리를 쫓느라 시간을 다 보내게 되고, 밤에 잠을 자려는데, 두려움, 큰 어두움의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학대 받을 낯선 땅으로 가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사 백년 후에 주님께서 그들을 큰 재물과 함께 밖으로 나오게 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집트에 있을 400 년에 대해서는 거기 창 15 장에 대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역사의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말하며, 팔 일만에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도 말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지파를 낳고, 이제 지파, 즉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의 선조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마치 그들은 살았던 적이 있는 자들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처럼, 그들 조상들의 매우 찬란한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스테반은 그들의 거품을 없애려고, 그들에게 어떻게 그 역사가 그들의 조상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그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열두 아들을 말하고 있으며, 질투가 그 족장들의 마음을 움직여 두 번째로 어린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겠지만, 그를 죽이려고 위협을 하고 있던 형 에서를 어떻게 피해 도망했는가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는 삼촌인 라반에게 가서, 사촌인 라헬과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를 위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삼촌에게 가서, 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겐 지참금이 없으니,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말하자, 라반은 대답하기를, 칠년을 나를 위해 섬겨라, 그러면, 그녀가 네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했고, 야곱은, 종소! 라는 대답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에, 칠년을 단지 한 순간처럼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와 결혼할 날이 왔습니다. 그들은 서약과 기타 등등을 다 마치고, 결혼식의 텐트로 들어간 뒤, 아침에 새벽 햇살을 맞으며, 그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고 쪽 살펴보았으나, 이는 아름다운 그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못 생긴 누이 레아가 아니겠습니까? 라반이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아버지가 와서 베일을 올려주는 전통의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바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치 상품처럼, 확인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야곱은 크게 당혹하여 안으로 들어갔으나, 라반은 이것이 관습이기 때문이라고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칠년을 봉사하면, 그 다른 하나도 가질 수 있다고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가 말하는 관습이란 나이든 자매를 두고 젊은

자매가 먼저 시집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칠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죠? 거기서 두 딸들

은 경쟁하기 시작했지만, 크게 경쟁이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레아는 다산했습니다. 아무튼 당신이 아는 것같이, 그들은 서로 경쟁했고, 야곱과 함께 누가 잠자리에 드는가에 대해 흥정하기도 했습니다. 레아는 많은 아이들을 낳았지만, 라헬은 아이 하나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 하녀를 주어 그녀를 통해 야곱의 아이를 갖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행해지는 것을 보고, 레아도 그에게 자기 하녀를 주었으니, 마치 진짜 무슨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침내, 라헬이 아들을 가졌는데, 그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라헬의 첫 번째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열 명의 형들이 있었으나, 야곱이 요셉에게 쏟은 정과 사랑은 다른 형들에게 보인 관심보다 훨씬 컸기에, 질투를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 때에 요셉은 꿈을 꾸기 시작했기에, 그가 형들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 모두가 곡식 단을 묶어 거기에 세워 두었으나, 형들의 곡식 단이 내 곡식 단에게 절을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꼬마야, 네 말은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야? 고 하면서, 아마도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에 그는 다른 꿈에 대해서, 즉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절을 하는 꿈도 내가 꾸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버조차도 이것에 약간 화를 낼 정도였는데, 야곱은, 그러니까, 네 어미와 아버도 말이야? 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시기가 닳으나, 그의 만형인 르우벤이 그를 죽이지 말자고 하면서, 나는 우리 모두에게 피가 미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 그를 웅덩이에 던져 넣고, 그냥 그를 굶어 죽게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여 행하고,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예 상인 또는 보통의 상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며 옆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멈추게 하여 실랑이를 벌인 뒤, 아마도 이집트의 노예시장에 순리대로 요셉을 팔아넘길 수 있도록, 이집트로 향하는, 이 상인들에게 은 이십 개를 받고 넘겼습니다. 요셉이 묶여 이집트로 간 뒤, 르우벤은 그의 동생들에게 울부짖었으며, 눈물을 흘렸고, 비탄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잘 가라 꼬마야!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는지 보자, 알겠지! 그러니까 이 기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독한 행위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옷옷을 취하고서, 양 한 마리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우리가 이웃에서 이것을 찾았노라고 하며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야곱은, 이것은 그의 것이 분명하니,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켜 버렸도다! 하며, 요셉을 잃은 슬픔에 잠겼는데, 그러니까 그가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언자가 아사 왕에게, 당신이 주님과 함께 하는 동안 그 분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대하 15:2)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환경으로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는 것과 같은 때가 많이 있는데, 분명 요셉과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이 그를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았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 시장에서 우두머리 중에 하나인, 왕의 호위대장 중에 하나인, 보디발에게 팔렸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훌딱 반하여, 그녀는 그에게 동침하자고 강요했으나, 그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받은 것은 지옥에서조차 이 여인의 경멸과 같은 분노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강간이라고 소리쳤고, 강간한 자가 요셉이라고 고소하자, 그는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내 말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이것 보세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소? 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말이죠. 몹시 힘들고 어두운 시간들을 통해 지나가는 수많은 경우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전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야, 당신은 보고서, 음 정말이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거기서 지도하고 계셨던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장을 갖기 전에 신비로운 사건의 중간에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당신이 보고, 그것은,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를 위해 풀리지 않고, 그 뒤 풀린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 사이에 있을 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9 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10 절**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견지시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주관하는 총독으로 삼았나이다.” **11 절** “그 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얻지 못하였으나,” **12 절**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함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요셉의 형들을 말합니다. **13 절** “또 두 번째 보내매,” (노트하세요,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지게 되니라.” 지금, 스테반이 갖추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첫 번째 그 부근에서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극히 영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 그의 형제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도록 기름 부어졌습니다. 그 꿈이란, 당신들의 곡식 단이 나에게 절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단정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려고 했고, 그들은, 이제 요셉은 끝이야!, 그의 꿈은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를 팔아 버렸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왔을 때가,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사춘기의 청년이 아니고, 성숙했을 것이며, 아마도 이집트 사람의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말을 했지, 히브리말로 그의 형제들과 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었을 것인데, 아마도 그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것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너희가 다 형제들이라 하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분명 너희는 정탐꾼들이야! 이 땅을 정탐하려고 왔지? 너희들 정보기관에서 나왔지? 나는 너희를 다 알고 있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항하며, 아니오! 우리는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장 어린 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형제 중에 하나는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아냐, 너희들은 정탐꾼들이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다시 올 때 그 어린 동생을 데려오는 것뿐이니, 그를 데려오는 것이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나는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아버지! 이집트에 있는 그 사람 인색하던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가 거칠다는 말이죠, 우리가 거기서 빠져 나온 것은 아마 행운일 거예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짐을 열었을 때, 요셉이 하인을 시켜 그들의 부대에 도로 집어넣었던 돈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부대를 열고 돈을 보며, 말하기를, 아니, 그 돈이 어떻게 거기에 있던 말인가?

라고 했을 것이며, 그들은 그것들을 찢어버리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도 짐작하겠지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가뭄은 계속되고, 식량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들아, 다시 가야겠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다시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면 또 모르지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야곱은, 안돼, 베냐민은 안 된다! 너희도 알지만, 그는 라헬이 낳은 유일한 자식이야, 만약 그가 죽는다면 그것은 나를 슬프게 하며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야, 절대로 너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라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형제들은, 그렇다면 우리도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으나, 마침내 식량이 바닥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를 데리고 가라, 그러나 너희가 잘 알아서 해야만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야곱은 자기와 충돌하는 모든 일로 인해 울부짖었는데, 그것은 그가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으로, 전체 중에 단지 한 부분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위치에서는 모든 것이 그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왔을 때, 요셉은 그의 당당한 동생을 보았습니다. 오, 그는 그 동생을 붙잡고 포옹하고 싶었으나,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녁식사를 위해 그들을 자기 숙소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하인들은 모든 일을 완전히 준비했는데, 그들은 명찰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식탁을 배치해서 나이 순서에 따라 그들을 자리 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묘했는데, 그가 어떻게 가장 나이 많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을까? 그가 그것을, 정확한 자리에 나이의 순서대로, 자리 잡게 한 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 요셉은 하인들에게 부대에 곡물을 채우라고 명령했고, 또한 은잔을 가져다가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린 자의 부대에 넣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내보낼 때, 그 자들은 미리 나와서, 그들의 돈을 모두 그들의 부대에 집어넣지만, 베냐민의 부대에는 식탁에서 가져온 은잔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간 후에, 요셉은 그들 뒤로 관원을 보냈고, 그들은 만나서 말하기를, 왜 너희들은 우리 주인이 너희들에게 베푼 선한 일에 대해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아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라고 되물었고, 하인들은, 음, 그 식탁에 있던 은잔을 당신들이 가져간 것 아니요!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소. 그럼 우리가 찾아 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찾자면 그 부대의 사람은 다시 데리고 가도 좋소!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대들을 열어 보았고, 결국 베냐민의 부대에서 그 은잔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오, 베냐민! 너 무슨 짓을 한거야? 그들은 말하기를, 그가 없이는 우리가 집으로 갈 수가 없잖아, 우리 모두 다시 돌아가야 해! 라고 판단한 후,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방이 있는 거기에 서서, 서로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요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심결에 서로 히브리말로 하고 있었는데, 당신도 알죠? 우리가 보응 받을 짓을 했잖아! 요셉이 얼마나 울부짖었지 모르지!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단 말이야! 그것을 기억하지? 우리가 아무런 자비도 주지 못했지! 그것에 대해 죄책이 있어! 몇 년이 지난 것이지만, 알다시피, 그것은 여전히 뒤를 돌아보게 하며, 쉽게 없어지지 않아! 라고 서로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기에, 이것은 그가 조용히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요셉이요, 형들아! 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한 일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랐으나, 끝에 가서 요셉은 말하기를, 당신들이 악으로

의도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전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요셉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할 것이야! 그러나 두 번째에 그들은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거기서 절하고 있었고, 복종하는 것 등을 보면서, 그는 그들의 것이 그의 것에게 절하는 곡식 단의 꿈을 기억했고, 그것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에, 여기 있는 그가 통치자로 인식됩니다. 예수님께서서도, 첫 번째 그 분이 왔을 때 그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했으니, 건축자들은 돌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머리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할 것이며, 그분의 재림 때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사랑하고 있는, 여기 그들의 조상들인, 그들도 요셉이 가졌던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15 절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는 물론, 나는 이집트에 묻히기 싫으니, 나를 데리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16 절 “세겔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겔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산 돌무덤에 놓이니라.”** **17 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매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하더니,”** **18 절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매,”** **19 절 “바로 이 왕이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루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파라오는 산파에게 여자 아이면 살려두고, 만약에 태어나는 사내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파라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파라오는 화가 나서 그들을 안으로 불러들여,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말했잖느냐? 사내아이들은 죽이라고 말이야,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이집트 여자들과는 달라, 그들은 활기가 넘치나이다. 내 말은, 그들이 아이를 낳으면 우리들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취하기도 전에 그들은 일어나서 가버리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그렇다면, 만약 그게 사내아이라면 강에다가 내다 버려! 알았지? 나일 강에다 말이야! 라고 명령했습니다.

**20 절 “그 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가 심히 아름다우므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 받다가,”** 출애굽기에서 그가 준수한 아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상 모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전설도 있을 정도인데, 그가 거리를 거닐 때, 너무 잘 생기고 모든 면에 선하여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그를 응시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겼으나, 너무 자랐기 때문에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갈대로 작은 케를 만들어,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나일의 강가에 그것을 띄웠습니다. **21 절 “버려진 뒤에 모세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양육하매,”** 파라오의 딸이 그녀의 하녀들과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아기의 우는 소리를 듣게 되자, 그녀는 하녀에게 일러, 거기 갈대상자에서 아기를 끌어내도록 한 뒤, 그녀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자,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하녀들은 히브리 사람 중 하나가 여기 강에 그 아기를 두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 아기를 자기의 것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고, 그래서, 그가 이집트 궁궐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22 절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음이니라.”** **23 절 “그의 나이가 정확히 사십이 되매 그의 마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들더니,”** 모세의 생애는 40 이라는 숫자로 나뉘어 지는데, 40 세가 되자, 무슨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학교에서 다듬어지는 훈련 기간이고, 그 다음 40 년은 아무것도 못하고, 단지 광야에서 목자로서, 장인의 양이나 치던 자로 있습니다. 그 다음 40 년은, 그가 아무것도 잡을 수 없자,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뒤, 그는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인도하는, 그 사람들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40 세가 되던 해에 그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4 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으니,” 그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25 절 “이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심을 깨달을 줄로 그가 생각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확실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려는데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6 절 “다음 날 그들이 다들 때에 모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이거늘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니,” 그래서, 다음 날 그가 다시 밖으로 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어서, 모세는 그것을 말리려고 그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아! 봅시다, 당신들은 형제이니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27 절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행한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 절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29 절 “이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급히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을 죽인 행위가 알려졌다는 것을 모세가 알자, 그는 만약 그것이 파라오에게 들어가면 큰일이기 때문에 이집트를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지역에 있는 광야로 갔고, 거기서 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고, 거기서 두 번째 40 년을 오직 그녀의 아버지인 이드로의 양을 지키는 목자로 지냈습니다.

30 절 “사십 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 산 광야에서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거늘,”

31 절 “모세가 보고 그 광경에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32 절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며 모세가 떨며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하였느니라.” 33 절 “그 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들이 이어졌습니다.

34 절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 왔노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내가 괴로움을 보았노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노라, 구원하려고 왔노라! 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느끼지 않는가! 우리가 주님께 울부짖으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고, 벌써 자, 내가 구원하러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35 절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으니,”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자로 왔던 첫 번째 모세는 구원자의 신분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그를 거절했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 자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가 왔을 때에, 그들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신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당신은 스테반이 하고 있는 그 사실적인 묘사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당신들의 조상들과 같군요.

하나님께서 한참 지나서 어떤 사람을 보내면, 처음에 당신들은 그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한참 지나서 두 번째에 가서야, 당신들은 보고, 그 분을 알아보게 되는군요. 물론 전[the whole] 배경은 예수님이죠. 그 분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지셨으나,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그 분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분은 다시 오실 것이며,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고, 지배하실 겁니다. 당신들이 그의 지배를 거절했으나, 그 분은 통치하고 지배하여 재림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계시에 대해 눈이 멀어 버리므로 그들의 조상들의 양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목적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인식될 것이며, 그들이, 말씀한 것처럼(슌 12:8), 그 분, 곧 자기들이 찌른 분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식할 것이고, 그들이 그 분을 거절한 것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에 오랫동안 슬피 울 것입니다.

그래서 36 절 **“그가 사십 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 광야에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약간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노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았기에 그것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육체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의 육체로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그는 한 사람의 이집트인도 성공리에 매장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시하시자, 그는 전[the whole] 군대를 홍해에 매장시켰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자로 부르셨지만, 알다시피, 당신이 자신의 육체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면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에 의해 인도되고 지시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분께 양보하고 복종할 때, 우리 같은 자를 통하여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7 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 나와 같은, 너희들이 처음에는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거절했으나, 지금 내가 구원하려고 와서 너희들을 이집트 밖으로 데리고 나왔노라. 이것은 모세가 이 길의 끝 부분을 향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신 18:18). 그는 지금 다가올 대언자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와 같은”입니다. 그리고 그 분에게 너희들은 들어야만 할 것이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들은, 우리는 저 산 근처에 가기가 싫고 겁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불, 천둥, 우뢰소리, 흔들림 등이 있는데, 아니요 당신이 가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말씀하시오, 그리고 내려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랴 말씀하셨는지 그것만 말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들겠으니, 우리는 저것을 직접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너무 겁나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것인데,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줄 때, “나와 같은” 또 다른 대언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분께서 오셔서,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요 14:10)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 곧 그 분에게 당신은 들을 것입니다.

38 절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모세를 말합니다.)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

으면서,” (회중, 또는 불러낸 자들을 말합니다.)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9 절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를 밀어내어” (당신들은 당신의 조상을 사랑하고 있지만, 당신들의 역사를 보시오. 당신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말해 보시오, 우리가 듣겠소! 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떠나게 하려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 그들은 이집트를 동경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고기를 갈망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인데, 우리가 만나에 질렸고, 싫증이 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기는 하나, 향이 없습니다. 오, 우리가 그것에 마늘이나 양파를 썰어서 먹었더라면 딱 좋았을 것을! 오, 너무나 고기가 먹고 싶어, 스테이크를 뜯어 본지 너무 오래 되었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천사의 음식에 대해 진짜 불평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만나는 싫증이 났다는 것입니다. 만나 과일조각, 만나 찌개, 만나... 그것에 대해 엄청나게 싫다는 것이죠. 40 절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는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고,” 그가 간 지 벌써 40 일이나 지났는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의 신들을 만들어 봅시다.

41 절 “그 때에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이들이 너희가 그렇게 항상 자랑하는 너희의 영예로운 족장인, 너희 조상이라!)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신들인데, 항상 그렇지만, 사람, 당신은 사람이 만든 신을 가지든지, 또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람들을 가지든지 합니다. 당신이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진 신들을 가지든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을 가지든지 한다는 말입니다. 42 절 “그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어 주사 그들로 하늘의 천체들에게 경배하게 하시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기록된바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 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43 절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즐거움의 신입니다.) “장막과 너희의 신 켈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들을,” (그들의 조그만 우상들인데,)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사람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들에게 빠졌고, 그들은 몰록, 아스다룻, 바알, 맘몬을 섬기기 시작했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포로로서 바빌론 너머로 끌러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4 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이가 정하여 주사 모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들은 이 성막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식양을 주어 만들 이 성막은 매우 정확하게 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 대로 정확하게 만들라. 왜 그랬을까요? 그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의 거룩함, 그룹으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하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천국과 같은 것들, 천국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막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쓰도록 하셨으며,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졌는데, 장막 안에는 물론 지성소가 있었고, 작은 언약궤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두 돌 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45 절 “또한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우리가

이전에 나는 것이지만, 예수는 헬라어이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이름은 예수이고, 히브리어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의미는 ‘여호와와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장막을 가지고 들어가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어느 정도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을 성취했습니다. **46 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한 장막을 마련해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다윗, 그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길 원했습니다. **47 절 “솔로몬이 그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48 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니 이것은 곧 대언자가 말한 바,”** **49 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혹은 내게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 절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 자기가 무슨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감상적인 유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우 큰 것을 만들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가 나의 거할 집을 만든다고? 들어보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솔로몬은 그가 집을 지어 헌납할 때, 말하기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당신을 포함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은 이 집이 당신을 담기에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당신을 한 곳에 둘만한, 사실상 우리는 그만한 것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편만하게 존재하신 분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우주를 통틀어 계시니, 우리가 당신을

피할 수가 없으나, 우리는 당신에게 나아가서 만날 장소를 원합니다. 이 장소는 그것을 위한 것이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의식하는 것 말입니다. 가끔 예배를 위해 시작을 알리는 기도를 할 때 잘못된 표현들이 있는데, 오, 주님, 여기 당신의 존전에 모이게 하시니 좋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저녁 당신의 존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당신이 하루 종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에도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이들을 혼내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 어떤 때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다윗은 시 139:7-10 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내가 주의 눈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존재해 계신 분이라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인식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당신의 임재를 피할 수 없군요, 당신은 나와 함께 가시는군요. 오히려 내 앞에 가시는군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당신 뒤에 있어야하고, 나는 당신의 임재에 싸여 있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스테반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내 말은, 그가 자기의 시간을 매우 명석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들의 역사와 그 다름에 대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 모르지는

하지만, 아마도 어떤 사람이 줄기를 시작했는지 아무튼, 그는 갑자기 말하기를, **51 절** “**목이 뻗뻗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는구나.**” 그는 진짜 그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목이 뻗뻗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성령님의 일을 듣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지도 않는구나! 너희는 너희 조상이 잘못된 대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52 절**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이 받아들였던 대언자의 이름이 있으면 말해 보라. 역사를 보라. 대언자들을 말한 히 11:32-40 을 읽어 보라. 어떤 자들은 돌로 맞아 죽고, 어떤 자는 감옥에 갇히고, 이사야는 톱으로 잘려 두 동강이가 되었다. 어느 대언자가 너희의 조상들로부터 핍박받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심에 관하여 미리 보여준 이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분을 배반하여 넘겨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모든 것을 대언한 자들로, 그들은 대언자들을 죽였거나, 예수를 이야기한 대언자들을 핍박했지만, 너희는 그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보기는,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 나쁜 자들이다! **53 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 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리가 그들을 찌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하여,**” (그들은 음--- 이라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이를 갈거늘,**” **55 절**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기 전까지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스테반은 그 분이 거기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자들이 왕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분은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거기에 서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56 절**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그는 환상을 보았고, 위를 바라보았고, 거기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매,**” 그들은, 이것을 듣고 싶지 않다! 라고 외쳤는데,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큰 목소리로 외쳐대곤, 귀를 막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다가가서, 우리는 진리를 알기 원치 않고, 듣고도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57 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 절**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고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이 자기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59 절**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절**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혹은 죽으니라.

자, 그리스도인에게 발생한 것이 죄인[역자주, 믿지 않는 자 혹은 비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것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은 항상 ‘잠을 잔다!’ 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사이에 다른 것을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가 잠자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요 11:2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예수를 믿었다면, 약속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우리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만 하고, 죽을 운명이 죽지 아니할 운명으로 옷 입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늦어진다면, 당신은 아마도 아침에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가 지난밤에 죽었다는 뉴스를 들을 것이나,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전략적인 보도이며 틀린 것입니다. 그들의 보도가 정확하려면, 이렇게 써야 옳습니다. 척 스미스는 지난밤에 오래된 장막을 벗어나 새로운 맨션으로 옮겨 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이 몸을 떠날 때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과 믿지 않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대조하여 지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관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잠잔다고 가르치지 않고, 영이 떠날 때 믿지 않는 자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구분을 주는 것일 뿐입니다.

사울, 다른 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이였고, 스테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받아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8 장의 바로 한 절만을 읽어보면, 그는 스테반의 죽음에 동의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에 대해 약간 소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뒤, 빌립을 살펴볼 것인데, 그는 식탁을 준비하는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에 신실하자, 하나님은 그를 사마리아의 놀라운 부흥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로 복음을 가져간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려갑니다. 오늘날 이 내시가 뿌리가 되는 이디오피아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8 장으로 가서 초대교회의 더 발전하는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기회 주신 것에, 시간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일들로 당신에게 마음을 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봅니다. 그 날은 주는 왕들의 왕이시오 주들의 주이심을 모든 피조물에 알게 하실 날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앞에 정하신 작은 일에 신실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도합니다. 동의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더러 무엇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이 우리더러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야망에서 도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우리의 주요한 욕망으로 당신과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